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6강

“허영의 시장에서”

- 로마서 8:5-17 -

1. 전도자와의 짧은 재회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로부터 면류관을 빼앗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군세게 견디어내고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죄에 대항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은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속된 것들에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피며 육신의 정욕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히 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행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 허영의 시장(Vanity Fair)에 도착함



허영의 시장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장이 서는 마을 전체가 그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 관심을 쏟은 탓이었다 ...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시끌벅적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거기를 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고전 5: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3. 소동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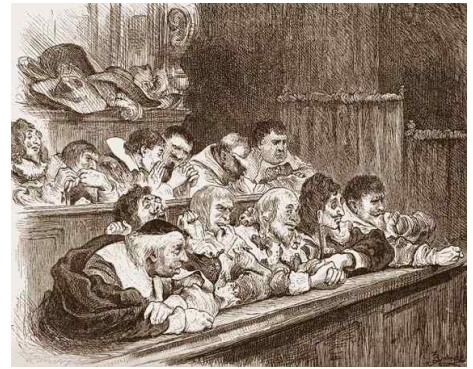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 둘째로 말투가 달랐다.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두 나그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시장사람들은 너나없이 둘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곱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갖아 짜증스럽고 헛갈리게 만들었다... 상인 하나가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냐?” 물을 때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말하자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4. 재판장에 나선 거짓 증인들

시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다만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고 감염시키는 악인입니다.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관습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신: 이자가 말한 대로면 우리는 모두 헛된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첨: 그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음란 경(The Lord Carnal), 사치 경(The Lord Luxurios), 허영 경(The Lord Desire of Vain-Glory), 섹욕 경(Lord Lechery), 탐욕 경(Sir Greed)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5. 믿음 씨 유죄를 위해 동원된 거짓 법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단 3:6) 누구든지 옆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단 6: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6. 믿음 씨가 순교하다

심문관들은 크리스천과 믿음 씨를 다시 끌어내어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관리들은 돌을 형틀에 묶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매질한 뒤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꽂꽂 묶어 온 시장에 조리돌렸다. 순례자를 동정하거나 변호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이들에게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 재판장은 혐오대마왕(Lord Hate-Good)이었는데 고소장은 이러했다.

“피고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런 사상을 퍼트려 패거리를 형성하였음.”

